



“야호! 우리는 해냈다”

승가원 장애인가족 설악산 대청봉 정복기

시각·정신 불편 딛고 험한 고봉 올라

각장애 3명, 정신 및 지체장애 4명 등 7명의 가족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2인1조로 편성, 각각 배낭을 짊어지고 매표소를 통과했다.

자원봉사자로 동행한 관동대학교 산악부 4명은 평균 10Kg의 배낭에 텐트·버너·보조자일(빛줄) 등 산악구조장비를 갖추고 선두·중간·후미그룹에서 동반·도중 발생할 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했다.

설악폭포에 도착하기 전 제1촌터에서 휴식, 30분이 경과한 11시 15분경, 앞서가던 선두그룹쪽에서 ‘사람이 추락했다. 폭포 아래로 사람이 미끄러졌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호! 기어올라!’ 미끄러진 사람이

은 시각장애인의 파트너, 산악부 회원.

고봉을 잇고 지그재그 참고 올라온 장애인 가족들의 노력이 허사로 끝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등반을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하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고민하던 지명스님은 일단 부상자의 상처를 응급조치시키고 산악부 1명을 동행, 병행하기로 결심했다.

최종 목적지 대청봉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험난했다.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설상가상격으로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 장애인과 함께 한몸이 되어 동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발걸음

을 재촉했다.

드디어 대청봉, 산정을 휘감고 있는 운무를 헤쳐나가 눈앞에서 마주친 ‘대청봉’이라고 쓰여진 비문, ‘야호, 우리는 해냈다.’ 비명과도 같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일행 중 가장 힘들게 등반을 했던 오창석군(남·16세, 정신지체2급)은 비석을 향해 연신 합장을 하며, 지명스님의 손을 잡고 ‘대청봉’이라는 글자를 마음 속에 담아두려는 듯 비석을 어루만졌다.

10월 19일 오전, 낙산사 원통보전(圓通寶殿)에서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무사산행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삼배를 올린 후 지명스님(성북그룹홈)은 한마음이 되어준 장애인 가족과 일행과 감격을 나누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단양 ‘청련암’



충북 단양 사인암 인근에 위치한 청련암은 최근 요사채 중수, 단장 ‘쌍기둥 복원불사’가 이뤄지고 있다.

나옹선맥 잇는 선도량 복원

고려때 창건·6·25로 소실
지장보살 봉안 백일기도
대웅전·종각 등 곧 착공

수백척 헤아리는 기기묘묘한 암석이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 있는 모습이 장관인 사인암(舍人岩), 단양 8경 가운데 4경에 속하는 사인암 인근에 위치한 청련암(주지 공덕)이 전통적 사색을 갖추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청련암은 고려 공민왕 즉위 22년 나옹선사에 의해 창건된 고찰. 그러나 청련암은 장구한 역사를 지닌 고찰임에도 전통사찰로 지정되기는 고사하고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 1954년 전란으로 가람이 소실된 이후 복원불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치됐다는 것이 더 나올 정도.

지난해 4월 주지로 부임한 종덕스님은 날이갈수록 퇴락해가는 사찰의 모습이 안타까워 복원불사를 발원했다. 그후 틈틈히 쓰러져가는 요사채를 중수하고, 돌담쌓기 등 기초적인 사찰조경불사를 시작했다. 사찰이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신도마저 재원 불성을 밝히지 않아 한다고 해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속에서 불

사를 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말하는 주위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스님의 집념을 더욱 강해졌다. 사찰의 규모보다는 옛선사들의 선종이 배어있는 사찰을 복원해 그 맥을 잇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기 때문이었다.

종덕스님은 “신도가 많으면, 재정의 풍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사찰의 척도는 아니다”며 “오히려 쇠락해 가는 사찰을 복원해 출·재가자들의 정신적인 귀의처로 거듭나게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불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한다.

청련암은 11월 6일부터 복원불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장보살 봉안을 위한 1백일기도 및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법회가 바로 그것. 청련암은 이 불사가 원만성취되면 대웅전, 종각, 일주문 등 구체적인 불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사인암의 절경을 비롯 청련암 주위를 병풍처럼 서있는 암벽, 폭포등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도량을 복원한다는게 스님의 지론이다. 또 옛 선사들의 선맥을 잇고 고찰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청련암이 바로 스님의 구상하고 있는 청련암의 복원 청사진이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한라산 존자암 중창불사 착수

3천여평 부지에 법당등 건립...1천일기도 입재

한국불교의 초전법륜지로 알려진 한라산 영실 존자암이 복원된다. 존자암 복원불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아·서귀포 법흥사 주지)는 22일 영실 존자암에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제주도내 종단대표스님과 각 신행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존자암 중창불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공된 존자암 중창불사는 16억2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천여평의 존자암터에 법당과 관리사 화장실 등을 설립하고 진입로와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존자암 복원불사추진위원회는 22

일부터 복원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1천일기도를 실시한다.

한편 존자암복원불사는 95년 신

성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국유림사용 등 개발사업승인이 최근 확정되면서 복원불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김종근 기자

인천 ‘노인 그룹홈’ 개원

연꽃마을 노인자립 도와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24일 인천시 동구노인복지회관 뒷편에서 ‘노인 그룹홈’(경로원) 개원식 및 동구경로의원 개원 1주년 기념 노인잔치를 개최했다.

인천 동구청에서 건물 2동을 구입, 연꽃마을에 운영을 위탁한 ‘노

인 그룹홈’은 인천 동구 관내의 70대 이상 노인에게 노인복지회관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 입주한 독거노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다양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노인 그룹홈’은 송림2동 124-69번지와 송림4동 2-146번지에 각각 소재해 있다. 한편 연꽃마을은 같은날 5백여명의 지역 불우·독거노인 등을 초청, 경로의원 개원 1주년 기념잔치를 열었다. 김재경 기자

합천 청소년회관 개관

연호사, 상담실·쉼터·문화공간 등 마련

청소년들에게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었던 합천군에 청소년 문화회관이 개관했다.

연호사(주지 능도)는 17일 합천을 대구시당 2층과 4층을 임대해 창소실, 쉼터, 및 문화공간을 마련한 것. 12평의 4층은 상담실, 전통다실, 독서실 등으로 운영되고 60여평의 2층은 소극장 연극무대, 음악감상실 등으로 활용된다. 이를위한 영상시설 및 오디오시설도 이미 완비된 상태이다. 연호사는 청소년의 휴식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명성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합천 청소년회관은 농촌벽지에 있는 전통사찰이 지역포교를 위해 앞장서는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능도스님은 “사찰이 자신이 속한 지역민을 위해 회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면서 “앞으로 독립된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대법당 준공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지원장 해근)은 18일 불상점안 및 대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준공된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대법당은 97년 4월 착공해 1년 6개월만에 완공됐다. 총건적 4백84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2층 전통양식건물로 지하 1층은 74평 규모에 4개의 모암방, 기계실이, 1층 2

백22평에는 종무소와 휴게실, 요사채, 공양간이, 2층 1백87평에는 법당과 요사채를 각각 갖추고 있다. 이날 대법스님은 법문을 통해 “단체별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법당을 완공할 수 있듯이 생활속에서도 하나 둘 닦치는 경계를 공부재로 삼아 자신속에 이미 내재된 불성을 밝히려야 한다”라고 법문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삼화사 미타전 기공

동해 두타산 삼화사(주지 원행)는 20일 미타전·산신각 신축 착공식을 봉행했다.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되는 미타전은 건적 15평 규모로 99년 10월30일 완공. 아미타불 좌우협시불, 삼존불이 봉안될 예정이며 산신각은 1억여원을 들여 건적 11평 규모로 신축된다.

봉은사 제6회 보우재 추모제·수계등 행사 다채

삼성동 봉은사(주지 무상) 보우대사 순교 4백32주기를 맞아 추모 기념행사 및 제6회 보우재를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했다. 22일 보우대사 추모법회를 시작으로 입재된 보우재는 봉은불사 체육대회, 산악 및 포교 체험수기 공모 시상식, 불우이웃돕기, 신행단체 연합수계법회, 정대불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한편 봉은사는 신심증대 및 포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신앙 및 체험수기는 포교사례집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선정된 소년소녀가장 10명에게는 매달 1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후원하게 된다. 김종근 기자

예천 용문사 윤장대 일반에 첫 공개

내달 23일...만동 불사·큰스님 초청 설법회도

예천 용문사(주지 청안)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윤장대 운전 대장경불사를 봉행한다. 용문사에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제684호)가 보존되어 있으며 11월 23일 근대 이후 최초로 일반에 공개한다. 주지 청안스님은 “경전을 보관하는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설해왔다”며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용문사는 이번 법회기간동안 목원 동국학원 이사장, 화산 대구 보광원 조실, 자광 김흥사 주지스님을 초청, 운전 대장경특별법회 및 만동불사 등도 갖는다. 김종근 기자

위기극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삼매체럼 선禪수련회** 개최

'98 겨울 지도자 스님 일반인 청소년 수련생 모집

산과 바다가 맞닿은 청정만 한라산 산아 제주에서 참선의 진수를 맛볼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선생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학생과 일반인 법회를 맡아 지도하는 스님 등을 대상으로 단기로 참선을 체험하고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최근 753불의 화를 당한 연명선언에 본부를 두고, 참선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이 참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취지 : 맹목적이고 타성에 젖은 삶 속에 과연 사람의 삶, '내'가 있습니까. 내가 실존된 세상에서 의욕과 용기가 있습니까. 참선생활운동본부에서는 누구나 곧 바로 마음 자리를 닦아 삶을 체험할 수 있는 3박 4일의 수행후 일상생활(직장 가정 학교 사회)속에서 순간 순간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길, 인간을 찾을 것입니다.
- ◆ 특징 : 참선 수련이 어렵거나 극기와 같은 힘든 수련이 아니며 수련후 일상 생활중에 실천이 가능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참선을 체험할 수 있음. 묵은 때는 벗고 생활의 활기를 찾으매 순간 분위기 전환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음.
- ◆ 각종법회 지도하는 스님대상 특별수행체험 기회 마련함. 학생(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생) 및 성인법회를 지도하는 스님 위주로 하며, 참선을 새로 시작하는 스님과 참선 접근이 어려운 스님들을 위하여 개인점도 갖는 수행 기회를 가짐
- ◆ 신청서류/일반/청소년 1.성명(한글, 한자) 2.주소 3.전화(자택, 직장, 휴대전화) 4.종교 5.주민등록번호 6.직업/청소년:학교(과)반 7.참가동기 8.수련회참가경험 유·무(유경험자는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를 지망 차수 1지망부터 3지망까지 기재(일정표참조)

- ◆ 신청서류/스님 : 1.법명(한글,한자) 2.법회지도사참과대상 3.거주사찰(또는 소속교육기관, 강원등) 4.참가이유 5.승려번호 6.참선정진경험유·무 7.선방안거유·무(언제 어느선방) 8.회당차수
- ◆ 자원봉사신청 : 매차수별 7명내외 ●동참금 8만원(일반, 스님)/6만원(학생)
- ◆ 참가확정통보 : 일반인, 청소년 12월 10일까지/ 스님-11월 30일까지 개별통보(통보받은후 불참사유가 생겼을 경우는 일반인, 청소년은 12월 15일까지 스님은 12월 5일까지 필히 불참 연락바람)
- ◆ 일상수행내용 : 수행중목언, 법문, 행선20분, 좌선20분, 예불, 선문묵송(염송, 염송글사경)
- ◆ 장소 및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 원명선원 참선생활운동본부(제주교대옆, 공항에서 함덕 또는 동회선 시내, 좌석버스 제주교대하차) ☎ 064)755-3322 전송 064-755-8913

선 수련 회 일 정 표	차수	기 간	인 원	신청기간	대 상	연 령 외
1차	98.12.8 ~ 10	50명	10.20 ~ 11.10	스님	법회지도자,	
2차	15 ~ 17	50명	"	스님	희망하는 스님	
3차	23 ~ 26	100명	10.20 ~ 11.30	일반인	65세이하	
4차	27 ~ 30	150명	"	청소년	학생	
5차	99. 1.1 ~ 4	100명	"	일반인	65세이하	
6차	7 ~ 10	"	"	"	"	
7차	14 ~ 17	"	"	"	"	
8차	21 ~ 24	"	"	"	"	

참 선 생 활 운 동 본 부
 제주시 화북1동 4684 한라산 조계종 원명선원 ☎064)755-3322